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학의 이해*

박 영 식**
서울신학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한 논의가 일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역사 속에서 특히 현대신학의 논의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이라는 두 주제의 길항 속에서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이 거부되는 오늘날의 시각을 주목하고, 현대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전적 죽음론을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였다. 그 논의 과정 속에서 본 논문은 죽은 자의 동일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억으로부터의 창조’와 부활의 공동체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은 죽은 자의 동일성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 보존된다고 믿는다.

주제어 : 죽음, 부활,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전적 죽음론, 기억으로부터의 창조

I. 들어가는 말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Augustinus) 죽는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단지 타인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코 정의되거나 파악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 본 논문은 2019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2018년 12월 15일 한국예배학회 정기학술모임(신촌성결교회, 채움)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약간 수정되었다.

** 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youngsik70@stu.ac.kr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죽음 이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모험을 넘어, 지적 허풍이 될 수도 있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인간의 지식은 아마도 영원히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 온전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지적 능력에 의존하여 선불리 죽음과 죽음 이후를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세월동안 인류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해 생각할 방향을 제시해 왔던 종교전통을 염두에 두고 죽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정직한 자세일 수도 있다. 더구나 죽음이 무의미하게 내팽개쳐 지는 오늘날 상황 속에서 개별 종교가 지니고 있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숭고한 의미를 현대적 논의 속에서 되새김질할 필요가 절실히 진다. 하지만 개별 종교들이 역사 속에서 단지 하나의 죽음 관과 사후관을 제시해 왔던가. 그렇지 않다. 개별 종교들 안에서도 역사의 변천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약간의 상이한 이해들이 변주되고 있다. 각각의 종교전통 속에서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 다양하게 말해왔듯이 그리스도교 또한 죽음과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 하나의 고정된 내용을 견지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사후의 삶을 부정하는 시대적 흐름에 직면하여¹⁾ 종교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그동안 모호했던 그리스도교적 사후 이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현대적 논의 속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죽음 이후에 관한 성서적 표상들을 신학적으로 사고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논의를 뒤따라가며,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를 조심스럽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프랑스 역사학자 아리에스가 자극을 준 ‘죽음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날 죽음을 둘러싼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대의 죽음이해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도 여타의 현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음을 대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원한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부활의 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20절; 살전4:13)로 묘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16절)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1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서의 표상들과 더불어 죽음은 오늘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죽음 이후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죽음의 역사와 오늘날의 과제를 살펴보고, 죽음 이후에 관한 다

1) 이러한 흐름은 예컨대 셸리 케이건, *Death*, 박세연 옮김, 『죽음』 (서울: 엘도라도, 2012)를 참조.

양한 견해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다음, 현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전적 죽음론(Ganztodthese)의 입장에서 죽은 자의 동일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죽음의 역사와 오늘날의 과제

1. 죽음의 역사

오늘날 현대인들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고 살고 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삶은 유한하고 허무함을 내포할 뿐 아니라 그래서 소중하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죽음에 둘러싸여 언젠가는 폐기될 삶을 소중하게 붙드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삶의 유한성을 철저히 고뇌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의 위협을 무시하고, 죽음의 자명성을 외면해 버린다.²⁾ 또한 삶의 유한성을 망각함으로써 죽음을 망각해 버리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죽음을 인지하고 진실하게 대면함으로써, 즉 삶의 유한성과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남겨진 삶의 소중함을 더욱 자각할 수 있음에도, 오늘날 현대인은 죽음을 외면하고 삶의 소중함을 놓치고 만다. 죽음에 대한 숙고는 사멸자로서의 인간존재에 대한 자각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자각은 삶을 더욱 생동하게 만든다. 죽음이 버려진 사회에서는 “죽어-버림”과 “죽어-버림”이 난무하며, “죽음문화의 상실과 부재가 생명문화의 상실과 부재로 이어”진다.³⁾

인류는 언제부터 죽음을 이처럼 내팽개치며 죽음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되었을까? 역사학자 아리에스에 따르면⁴⁾, 중세 초기에 죽음은 공동체 안에서, 즉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음을 고요히 맞이하는 방식으로 일어났고, 무덤도 교외에서 도

2) 유호중, 『떠남 혹은 없어짐 - 죽음의 철학적 의미』(서울: 책세상, 2001)에서 저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는 이유가 “죽음을 직시하지도 않으려 할 정도로 두려움과 전율을 느껴서 일 것이다.”(23)고 말하지만, 어쩌면 죽음은 두려움과 전율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저 무관심과 무의미성에 방치되고 있는 듯하다.

3) 정현채 외 7명, 『삶과 죽음의 인문학』(서울: 석탑출판, 2012), 72과 73쪽

4) 본문에서는 필립 아리에스, *L'Homme devant la mort*, 고선일 옮김, 『죽음 앞에 선 인간』(서울: 새물결, 2004)와 *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Âge à nos jours*, 이종민 옮김, 『죽음의 역사』(서울: 동문선, 1998) 중에서 후자의 책을 참조했다. 또한 아리에스의 죽음의 역사를 미술작품과 함께 대중적으로 서술한 진중권, 『춤추는 죽음』 1권과 2권(서울: 세종서적, 2005) 참조.

시의 내부로 옮겨지게 되었다. 아리에스는 이를 “길들여진 죽음”이라고 명명했다.⁵⁾ 이후 11-12세기부터는 죽음과 심판이 결합되면서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친밀성” 대신에 “극적이며 개인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⁶⁾ 이 시기에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무엇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서서히 종교적인 색채가 물러나고, 죽음의 세속화가 일어난다. 죽음, 곧 타나토스는 에로스와 결합되어 일상과 가까이 있는 듯 보이면서도 시체와 고통, 형벌이 적나라하게 그려지며 삶의 세계에서 추방된, 비일상적인 “단절”⁷⁾로 묘사되기도 한다. 18세기 이후로는 유언장 작성의 내용도 철저히 세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 과도할 정도로 표현되며 죽음 자체보다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중요시된다. 죽은 자들의 묘지가 교회에 마련되었던 중세와는 달리 18세기 후반부에서는 가족 소유의 영지가 마련되고 특별한 묘비가 세워진다.⁸⁾

19세기 중반까지 죽음의 역사를 묘사해 왔던 아리에스는 20세기 초, 중반부터 “전통적인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거친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사실상 그것은 완전한 전대미문의 현상이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동반해 왔던 인류에게 “죽음은 이제 수치스럽고 금기시된 대상”이 되어버렸다.⁹⁾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보다는 갑작스런 사고로 죽거나 병원에서 쓸쓸하게 죽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의사나 환자의 가족들은 죽음을 의학의 패배로 생각한다. 죽음은 마지못해, 예기치 못하고 당하는 사건이지, 준비하고 맞이하는 삶의 사건이 되지 못한다.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도 마치 자동차 수리를 맡기듯 상조회에 위임해 버린 채 가족들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갈 뿐이다. 아리에스의 표현대로 오늘날 죽음은 “난처할 정도로 품위 없는 죽음”¹⁰⁾이 되었으며, 떠나는 자도 남은 자도 아무도 진정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금기시되고 죽음문화가 상실되어 버릴 때 생명에 대한 애착과 생명문화도 부재하게 될 것이다.¹¹⁾ 따라서 죽음의 이야기는 금기시되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죽음에 대한 의식은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지만 죽음을 회피할수록 삶은 더욱 메말라간다. 현대인들이 죽음에 대해 무덤덤하다고 하지만, 죽을 뻔했던 경험

5) 아리에스, 『죽음의 역사』, 28쪽.

6) 앞의 책, 36쪽.

7) 앞의 책, 53쪽.

8) 앞의 책, 58쪽이하.

9) 앞의 책, 70쪽.

10) 앞의 책, 73쪽.

11) 정현채 외 7명, 앞의 책, 73쪽. “죽음문화의 상실, 죽음관의 부재, 아니면 건강한 죽음이해의 소멸은 곧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의 상실, 생명에 대한 외경의 포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학으로 이어진다.”

이나 질병으로 죽음의 경고를 받는 경험은 삶에 대한 애착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또한 죽음은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¹²⁾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은 지금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너머를 희망한다. 물론 죽음 너머를 희망한다는 것이 죽음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교에서 죽음 너머의 삶은 시간적으로 생물학적 삶 너머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역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자는 어떻게 되고, 역동하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죽음 너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2. 죽음에 대한 상이한 견해

죽음은 무엇인가?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서구 사상사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플라톤이 『파이돈』¹³⁾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하여 묘사했듯이 선재하는 영혼은 사람이 죽을 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불멸한다. 더구나 인간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보았기에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런 점에서 신적이다. 그리스적 죽음이해는 오늘날 근사체험을 다룬 책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죽음 이후에 몸과 분리된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¹⁴⁾

이와는 대조적으로 히브리 성서의 인간론은 인간 존재가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본다. 인간에게 신적인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이나 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들(네페쉬, 루아흐)은 몸과 분리된 실체의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상반되고 분리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죽음은 단지 육체의 소멸일 뿐이며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불멸한다.’는 그런 사상은 히브리 사유에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약성서에서 인간의 죽음은 몸과 영혼을 가진 전체 인간의 죽음이며, 죽음은 비신화화된다.¹⁵⁾ 죽음은

12) 죽음에 대한 의식이 타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는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의 영상을 참조바람: EBS 다큐프라임 - 데스 제3부 Carpe diem(YouTube에서 검색 가능).

13) 플라톤, *Phaidon et.*, 박종현 역주,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서울: 서광사, 2003), 247-461쪽 참조.

14)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Life after Death*, 최준식 옮김,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참조.

15) Eberhard Jüngel, *Tod*(Stuttgart: Kreuz-Verlag, 3. Aufl., 1973), 93쪽. “죽음은 인간적이다. 죽음은 추

철저히 관계의 소멸이며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¹⁶⁾

하지만 구약성서의 변두리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¹⁷⁾ 신약성서에서 전제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희망으로 자리 잡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특이하다. 이 희망은 그리스적 인간론과는 달리 전적으로 생명의 하나님에 근거한 희망이지, 인간 자신의 신적 요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골1:18, 행26:23)이며, 부활은 영혼의 불멸과는 무관한 육체의 부활(resurrectio carnis)로 사도 신경에 고백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죽음 너머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사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III. ‘죽음 이후’에 관한 견해들

1. 영혼불멸 vs. 몸의 부활

영육의 분리를 주장하는 그리스적 인간론과 전체로서의 인간을 주장하는 히브리 성서적 인간론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신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정화와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부활 이후에 육체는 “아무런 부족도 겪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행복하고 완전한 영혼에 의거하여 최고의 평정 속에 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⁸⁾ 적어도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음에 있어서 몸과 영혼을 구분하며 몸의 부활을 영혼불멸 속으로 편입시킨 듯 보인다. 영혼불멸의 사상은 서구 철학사에서도 칸트에게도 수용되며 피히테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이어진다. 몸과 분리될 수 있는 실체

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다. 인간은 죽는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는 죽음을 비신화화 하는 경향이 놓여 있으며 신약성서에서는 이를 더욱 철저하게 표현한다.”

16) 예컨대 전도서 10장 4절-5절(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을 언급할 수 있다.

17) 대표적으로 구약성서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 이사야 25장 8절, 26장 19절, 에스겔 37장을 언급할 수 있다.

18) 아우구스티누스,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왜관: 분도출판사, 2011), 99(19,18); Eberhard Jüngel, 앞의 책, 118쪽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의 죽음, 몸의 죽음, 전체 인간의 죽음,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인간(악인)의 죽음을 말함으로써 플라톤적 죽음이해와 차이를 보인다.

로서의 영혼을 주장하는 그리스적 인간론은 그리스도교 역사에 유입되어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죽음 이후를 말할 때는 영혼 불멸을 말하기도 하고 몸의 부활도 말하면서 “그리스적이고 히브리적 희망비유의 합성”이 일어나게 되었다.¹⁹⁾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속한다는 견해는 중세 가톨릭 신앙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1946년에 발행된 개신교 신학 저서에서도 영혼의 존속과 몸의 부활이 결합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²⁰⁾ 이러한 생각은 이미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루터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부활의 때까지 잔다고²¹⁾ 생각한 반면, 칼빈은 영혼이 하나님 곁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했다.²²⁾ 루터와 정통주의에 따르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부터 따라 나오는 자연적 삶의 결여”(privatio vitae naturalis ex dissolutione animae et corporis proveniens)이다.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삶을 멈추지만 영혼은 멈추지 않고 그 본질에 해당되는 모든 특성과 영향을 지닌 채 지속적으로 살게 된다. 여기에는 영혼불멸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다. 죽음 이후 영혼은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얻든지 하게 된다. 하지만 개신교 신학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심판과 구원의 중간상태는 거부하며, 사후에 영혼이 머문다는 다섯 개의 장소, 곧 지옥(infernum), 연옥(purgatorium),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을 위한 자연 복락소(limbus puerorum), 고성소(古聖所, limbus partrum), 천국(coelum) 중에서 지옥과 천국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는 제거된다.²³⁾

개혁과 정통주의도 죽음 이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죽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는 단계로 이해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신자의 “영혼의 영화는 죄와 사망의 육신으로부터의 자유와 완전한 성화, 그리고 천국에의 도착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서 천상의 복락을 향유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육체의 재결합을 통한 영화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결을 기다리게 된다.”²⁴⁾

19) 그레사케, *Naherwartung, Auferstehung, Unsterblichkeit: Untersuchungen zur christlichen Eschatologie*, 심상태 옮김, 『종말신앙- 죽음보다 강한 희망』(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0), 92쪽

20) 오톤 와일리, 폴 켈벗슨,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전성용 옮김, 『웨슬리안 조직신학』(서울: 세북, 2002), 484-485쪽.

21) 김선영, “루터의 부활론: 죄와 죽음 vs. 의와 생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2018), 161-193쪽, 특히 181쪽 이하 참조. 루터가 ‘영혼의 잠’을 언급했지만, 그것만 말한 것은 아니다.

22) Markus Mühling, *Grundinformation Eschatologie*(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69-171쪽 참조.

23) Heinrich Schmid, *Die Dogmatik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n*(Gütersloh: Verlag von C. Bertelsmann, 7. Aufl., 1893), 461-462쪽.

24) H. Heppel/Bizer,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n*(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2. Aufl., 1958). 한글역으로는 이정석 옮김, 『개혁과 정통 교의학』(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981-982쪽.

하지만 바르트, 융엘, 엘리트, 몰트만, 판넨베르크와 같은 현대 개신교 신학자들은 모든 형태의 영혼불멸설을 부정하며, 몸과 영혼이 함께 죽는 ‘전적 죽음론’을 주장한다.²⁵⁾ 여기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몸의 죽음과 더불어 영혼도 소멸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과 분리된 영혼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몸과 영혼인 사람이 존재했을 뿐이고, 그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은 소멸된다. 전적 죽음론은 영혼불멸을 강조했던 그리스 사상보다는 부활에 대한 히브리적 사유를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진다면, 무엇이 부활한다는 말인가?

오늘날 영혼불멸과 부활 논쟁을 촉발시켰던 신약성서학자 오스카 쿨만에 따르면 영혼불멸 사상은 비성서적이며,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이다.²⁶⁾ 1956년에 불어로 출간한 쿨만의 논쟁적인 주장에 대해 가톨릭 신학자 요셉 라칭어는 불만을 표출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쿨만의 주장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채 급속도로 빠르게 그리스도교 공동체 속에 퍼져나가 급기야 영혼(anima)에 대한 언급이 비성서적인 것이라며 1970년에 발행된 가톨릭의 장례예식(Totenliturgie/Rituale für das Begräbnis)에서 영혼(anima)이란 단어가 아예 삭제되었기 때문이다.²⁷⁾

쿨만은 그리스 철학에 기초한 영혼의 불멸과 성서의 죽은 자들의 부활 사상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 둘을 혼동하여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오해라고 보았다. 쿨만은 죽음과 영생에 관한 신약성서의 생각은 시간적 흐름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그는 죽음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죽은 자들의 부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인 중간상태를 주목한다.²⁸⁾

쿨만에 따르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범죄로 인해 주어진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것, 비정상적인 것,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이며 “저주”다.²⁹⁾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정복되었다. 예수의 부활을 쿨만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으로 파악한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새 창조의 사건이 예수의 부활에서 앞당겨 일어났다. 오직 역사의 한 지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새 생명의 사건이

25) Markus Mühling, *Grundinformation Eschatologie*, 171쪽.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2 (Zürich: TVZ, 4. Aufl., 1979), 724-725; Werner Elert, *Der christliche Glaube. Grundlinien der lutherischen Dogmatik*(Hamburg: Furche-Verlag, 5. Aufl.), 502-506;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Bd. III*(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598이하; 몰트만, *Das Kommen Gottes*, 김균진 옮김, 『오시는 하나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19쪽. “나는 여기에서 전적으로 살고, 전적으로 죽으며, 전적으로 부활한다.”

26) Oscar Cullmann, *Unsterblichkeit der Seele oder Auferstehung der Toten?*(Stuttgart: Quell, 1986), 17쪽.

27) Johann Auer/Joseph Ratzinger, *Kleine Katholische Dogmatik. Eschatologie-Tod und ewiges Leben* (Regensburg: Friedrich Pustet, 4. Aufl., 1978), 93-94쪽.

28) O. Cullmann, 앞의 책, 18쪽.

29) 앞의 책, 32쪽.

일어났으며, “몸의 부활, 물질의 새창조”가 일어났다.³⁰⁾ 비록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정복당했지만, 종말에야 비로소 폐기”³¹⁾이기에, 신자는 죽음 이후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죽은 자들의 부활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쿨만에게서 기다림의 시간, 곧 성서가 잠든 상태라고 표현하는 이 시간은 “육체의 몸을 벗었지만 아직 영의 몸을 입지 않은 성령에 붙잡힌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시간이다.³²⁾ 쿨만은 중간상태를 기다림의 시간으로 표현함으로써 죽은 자들도 여전히 “시간 안에”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들과 다른 “시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여지도 남겨둔다.³³⁾

2. 육체의 부활 vs. 인격의 부활

쿨만의 영혼불멸에 대한 비판은 영혼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영혼의 ‘불멸’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죽음의 세력에 억눌린 피조세계는 죽음을 돌파할 힘이 없으며, 따라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 힘으로 불멸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죽음 이후 별거벗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영적 몸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몸의 부활은 이 기다림에 대한 응답으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써만 가능하다.³⁴⁾

하지만 죽음 이후 몸과 분리된 영혼이라는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영혼과 몸의 재결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몸의 부활에서 이미 부패한 시체들이 흩어지고 사라진 물질들과 결합하여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가?³⁵⁾

일련의 가톨릭 신학자들은 플라톤적 이원론에 근거한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진 않지만, 몸의 부활을 시체의 재생이나 물리적 재결합과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고인의 시체가 흙 속에서 분해되어 버린 상태에서 흩어진 분자들을 다시 결합시켜 각각 묻혀 있던 장소로부터 시신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몸의 부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몸의 부활은 “은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은유적으로 이해되어야만 오해를 피할 수 있다.³⁶⁾

30) 앞의 책, 43쪽.

31) 앞의 책, 52쪽. 성서 구절로 딤후1:10, 고전15:26, 계20:14, 21:4을 언급한다.

32) 앞의 책, 54-58쪽. 인용은 58쪽. 그의 주장은 고후5:1-10을 근거로 제시한다.

33) 앞의 책, 62-63쪽.

34) 앞의 책, 59쪽.

35) 하인리히 헤페, 앞의 책, 983쪽

36) Hans Küng, *Ewiges Leben?*(München: Piper, 4. Aufl., 1984), 142쪽, 145쪽.

“그렇다면 몸의 부활, 곧 몸을 가진 인간의 부활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만약 ‘몸’을 생리학적으로 그 때의 육체로, 즉 ‘시체’, ‘유골’로 이해한다면, 아니다. 하지만 ‘몸’을 신약성서의 ‘soma’로 이해하고 생리적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것, 동일한 인격적 현실로 이해한다면, 그렇다.”³⁷⁾

몸의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체의 소생이나 재현이 아니다.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에게도 영혼과 몸이 결합된 ‘전인’(全人)의 부활과 죽음 이전의 존재와의 ‘동일성’ 확보가 중요했다.³⁸⁾ 오늘날 몸의 부활은 살아온 역사와 그와 얽힌 모든 관계들이 ‘완성’됨을 뜻한다.³⁹⁾ 가톨릭 신학자 그레사케도 성서가 그려주는 몸의 부활과 관련된 그림들은 현대인에게 “유치한 표상”이라고 꼬집으면서, 몸의 부활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1) 몸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불멸적 영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 존재가 최종적 완성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해 주며, 2) 몸의 부활은 사회적이고 역사적 존재인 인간이 여러 가지 결점과 불완전함에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전존재가 수용됨을 의미한다.⁴⁰⁾ 이처럼 ‘몸의 부활’이라는 성서의 표상은 이제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완성된 인격의 부활로 이해된다.⁴¹⁾

3. 죽음 안에 있는 부활 vs. 마지막 때의 부활

몸의 부활을 물질적 육체의 회생이나 영혼과의 재결합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온 자신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죽음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그레사케와 같은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은 “죽음 안에 있는 부활”을 주장한다. 몸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세상 종말이 일어날 때 시체들이 부활한다거나 “가시적인 육신이 변모”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사자(死者)의 전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²⁾

중세에 이미 교황 베네딕트 12세(1334-1342)는 모든 신자들의 영혼은 죽음 이후 더 이상 정화가 필요 없으며, 죽음 이후에 즉시로 천상의 세계에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37) 앞의 책, 146쪽.

38) 하인리히 헤페, 앞의 책, 987쪽.

39) Franz Josef Nocke, *Eschatologie*(Düsseldorf: Patmos Verlag, 2. Aufl., 1985), 122쪽.

40) 그레사케, 앞의 책, 94쪽.

41) Leonardo Boff, *Was kommt naher? Das Leben nach dem Tode*(München/Zürich: Piper, 2. Aufl., 1993), 32-34쪽.

42) 그레사케, 앞의 책, 99-100쪽.

로 사실상 무거운 죄 중에 떠난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진다.⁴³⁾ 여기서는 비록 여전히 영혼의 관념이 남아 있지만, 죽음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최종적인 지복의 상태에 들어간다.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와 최종적인 부활 사이의 중간시기나 중간상태가 생략된다.

특이하게 즉각적인 부활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최종적인 몸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는 이도 있다. 그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더불어 즉각적인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을 경험하지만, 즉각적인 부활이 더 나은 부활이라고 주장한다.⁴⁴⁾

오늘날 죽음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중세의 즉각적 부활과 다른 점은 영혼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있다. 이 때 몸은 물론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담지하고 있는 인격 너머의 인격을 뜻한다. 쾅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유한한 인격이 무한자 속에 잠기면서 자신의 한계가 사라지기에 인격과 비인격의 현존하는 대립은 초인격적인 것으로 상승한다.”⁴⁵⁾ 특히 신앙인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잠입해 들어가 그 삶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죽음과 동시에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성서가 표현하는 잠든 상태와 다시 깨어나는 몸의 부활 사이의 중간시기(상태)란 폐기되고 마는가? 역사의 종국에 일어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성서적 표상도 폐기되고 마는 것인가?⁴⁶⁾

4. 죽음 이전과 이후의 동일성 문제

임종시 분리되는 영혼이 없다면, 한 인간의 죽음은 전적인 죽음이다. 몸과 정신(영혼)이 다함께 죽는다. 그렇다면 부활도 전적인 부활일 수밖에 없다. 영혼이 살아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것도 아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 자신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생에서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 이후의 삶인가? 죽음과 동떨어진 사건인가? 한 마리 나비처럼 무덤 위로 날갯짓하며 죽지 않고 계속

43) Franz Josef Nocke, 앞의 책, 119쪽.

44) 최태영, 『죽음 너머 영원한 삶』(서울: 한울출판사, 2011), 특히 75쪽이하.

45) H. Küng, 앞의 책, 146-147쪽.

46) Leonardo Boff, 앞의 책, 31-40쪽.

살아남기 위해 그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을 작은 영혼인가?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아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 부활에서는 우리의 삶, 우리 인간, 즉 우리 자신이 관건이다. **우리가 부활한다.**"⁴⁷⁾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인간존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인간론과 연결되어 있다.⁴⁸⁾ 신학사에도 잔존해 있던 영혼불멸설은 무엇보다도 플라톤의 심신이원론(영육이원론)에 근거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원론을 수용해서 인간을 파악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에 관한 이론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심신이원론적 견해와는 다소 다른 주장을 전개한다. 중세의 1312년 비엔나 공의회에 의해 수용된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혼은 독자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질료로서의 물질에 부여된 형상으로 이해된다. 즉 형상이 없는 질료가 존재할 수 없듯이, 질료 없는 형상이 또한 존재할 수 없다.⁴⁹⁾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불멸성과 영원성을 주장하지만, 개인의 불멸성이나 개체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세계영혼으로 편입해 들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사유를 수용하여 가톨릭 신학자 포그리믈러(Herbert Vorgrimler)는 한 인간이 죽음에 이를 때, 몸이 죽을 뿐 아니라 몸과 결합되어 있던 영혼도 죽음에 영향을 받으며 죽음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는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전체 인간은 죽음 속에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죽는다.”⁵¹⁾

오늘날 뇌 과학자들 중에는 인간의 정신이 뇌의 기능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정신이나 영혼은 뇌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⁵²⁾ 이들에 따르면 “의식적 자아는 우리 행위의 진짜 주인이 아니며, 심하게 말해 자유의지는 기만이다.”⁵³⁾ 이런 견해는 뇌라는 물질이 정신을 결정할 뿐 아니라 정신은 뇌라는 물질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서 뇌와 정신(영혼)의 작용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순

47) Karl Barth, *Dogmatik im Grundriß*(München: Chr. Kaiser Verlag, 1947), 179쪽.

48) 스텐리 그렌즈,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신옥수 옮김, 『조직신학-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42쪽 이하 참조.

49) H. 포그리믈러, *Tod*, 심상태 옮김, 『죽음』(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2), 140-143쪽.

50) 김균진, 『죽음과 부활의 신학』(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304쪽.

51) 포그리믈러, 앞의 책, 145쪽.

52) 한스 쾅, *Der Anfang aller Dinge*, 서명옥 옮김, 『한스 쾅, 과학을 말하다』(왜관: 분도출판사, 2011), 236쪽 이하 참조.

53) 앞의 책, 243쪽에서 독일 브레멘의 신경생리학자 Gerhard Roth의 말을 재인용.

없지만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몸과 영혼의 죽음, 곧 전적인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뇌 과학의 연구와 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죽음과 함께 뇌와 정신(영혼)이 모두 소멸된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다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만약 죽음과 더불어 몸과 영혼이 모두 죽는다면 성서가 말하는 잠든 상태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며,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또한 자다가 깨어난다고 할 때, 즉 몸의 부활을 말하는데 죽고 소멸한 뒤 무엇이 남아서 깨어나고 부활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력에 의해 전적으로 죽은 자가 전적으로 부활한다고 한다면 죽음 이전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존재 사이의 동일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⁵⁴⁾

IV. 전적 죽음과 몸의 부활

1. 전적 죽음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죽음 이후와 관련해서 성서에 나타난 주된 몇 가지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우리의 경험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성서의 표상을 문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성서 표상의 문자적 의미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천진난만한 성서주의”⁵⁵⁾에 기댈 수는 없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통용되는 개념과 사유를 통해 죽음 이후에 관해 성서가 펼쳐놓은 표상의 신학적 의미를 사유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도 있고, 감춰진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 죽은 자는 무엇을 남기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물품을 남긴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신의 몸, 곧 시신을 남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도 사라지나 죽은 자가 죽었다는 사실만은 남는다. 그의 죽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애도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을 슬퍼하는 것일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를 그리워하며, 회고한다. 그의 몸과 소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온 삶과 여러 존재들과 맺었던 관계는 그가 떠난 빈자리에 여전히

54) Johann Auer/Joseph Ratzinger, 앞의 책, 94쪽.

55) 같은 책.

남아있어, 우리는 그 빈자리를 슬픔과 회상으로 메운다. 애도와 회상의 시간을 통해 그가 지나간 삶의 길들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따라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고, 그의 실존은 부재하지만,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회상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존재의 방식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의 몸도 영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살아간 삶과 그와 나눴던 이야기는 그의 부재를 메우며 우리 곁에 있듯이, 우리는 현대 신학자들이 제시한 전적인 죽음, 몸과 영혼의 전적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한 인간이 살아온 삶과 그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죽었다. 그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끊어졌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며 하나님이 그와 맺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고인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아신다.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의 뒤틀리고 왜곡되고 오해되었던 삶은 기억되고 보존될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다.⁵⁶⁾

오늘날 뇌 과학의 연구결과들을 수용한다면, 뇌의 죽음과 함께 정신이 소멸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불멸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관계하며 그를 기억하며, 그를 품에 안으신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관계하신다.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동일성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의해 유지된다.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지금도 아신다. 하나님의 앞 속에서는 그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이지만 동일자로 존재한다. 죽음과 함께 그로부터 가능한 모든 것은 끝났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되지 않는다(아가8:6, 롬8:31-39). 그는 죽었지만, 생명의 하나님께서 잠든 그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는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공간의 차원으로 들어선다.

“죽음 안에서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규정하는 관계를 빼앗긴다.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 즉 바깥에서 보면 죽음은 완전한 무관계성, 곧 사람과 사물에 대한 모든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볼 때, 즉 안에서 보면, 죽음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 곧 궁극적 현실로서의 그 분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죽음 안에서 인간에게, 물론 전체적이며 나뉘지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의 새로운, 영원한 미래가 주어진다.”⁵⁷⁾

성서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자는 ‘잠들어 있다.’(고전15:18,20; 살전4:14) 잠든 자는

56) 위르겐 몰트만, 앞의 책, 128-136쪽; 한스 페터 뒤르 외 4인, *Gott, der Mensch, und die Wissenschaft*, 여상훈 옮김, 『신, 인간 그리고 과학』(서울: 시유시, 2003), 211쪽.

57) H. Küng, *Ewiges Leben?*, 148쪽.

깨어나기 전까지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잠든 자를 바라보는 자는 잠든 자를 의식하고 사랑한다. 부모의 품에 잠든 아이처럼 하나님은 잠든 자를 품에 안으신다. 성서는 이와 관련하여 ‘예수 안에서 자는 것’(살전4:14)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빌 1:23)으로 표현한다.

언젠가는 모두가 그를 잊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심으로 그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죽은 자의 삶(생명)은 새롭게 이해되고 파악되고 온전하게 구성된다. 고인과 그의 삶에 대한 인간의 기억은 언제나 파편적이고 굴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그를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분께서, 나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신 그 분께서 죽음으로 종말에 이른 내 삶을 온전히 아시며, 나의 존재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온전히 구성하신다.

2.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삶

‘잠’이라는 이미지는 쉼을 연상시킨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14장 1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을 묘사할 때, ‘쉼’과 ‘수고를 그침’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상의 수고가 멈춘다는 점에서는 단절을, 쉼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연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세월의 무거움과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서 회복되고 평화와 환희로 채워진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은 마지막 때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음으로써 마치 죽음과 종말론적 부활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정말 중간시기(중간상태)에 시간이 흐른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잠든 자의 시간의식은 우리의 시간경험과는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

‘잠든 상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흐름 속에 있는 상태이지, 시계와 달력에 의해 측정되는 시간의 개념과 무관하다. 따라서 ‘삶 이후의 삶’이라고 표현할 때, 전자의 삶과 후자의 삶은 서로 질적으로 다른 삶이다. 지상의 시간이 양적으로 연장된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의식이 지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의 영원성은 지상적 개념으로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영원이 아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시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으며,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신적 영원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영원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존재론적 차원을 지시한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 영원한 안식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기에,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는 또한 영원한 삶이다. 영원한 삶은 삶의 막연한 연장이 아니라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을 의미한다.

3.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

성서는 죽음의 상태를 잠과 연관시킬 뿐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을 이야기한다. 고전 15장 16절 이하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라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앞서 우리는 중간시기(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기)가 연대기적 시간 개념으로 생각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우리의 시간의식으로는 ‘오랜 시간’이겠지만 루터의 표현대로 잠든 사람의 의식으로는 ‘순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죽음 안에 있는 부활’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적용될 ‘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간시기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지상의 관점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따르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기대가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이미 잠든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때에 ‘변화’할 몸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부활의 몸은 별거벗은 영혼도 아니며 살과 피로 된 육체의 소생이 아니다. 바울은 ‘영의 몸’(soma pneumatikon)을 언급하면서 이전의 존재와 맺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강조한다. 불연속성은 존재의 변화와 새로움을 지시하고, 연속성은 동일성과 더불어 지상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죽은 자의 부활은 전적으로 죽은 자들의 전적인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이지만, 이는 처음 창조(creatio originalis)의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와는 달리, 기억으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memoria)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나의 존재를 보존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창조적 힘이 새로운 존재로서 나를 창조하실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서의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빌3:21)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서 지상의 존재와 다르면서도 동일성을 수여받으며, 잠에서 깨어난 존재들로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몸으로 느끼고 만지고 관계하는 생명의 부활은 몸을 하찮게 여기고 영혼을 중시하는 헬라적 관념을 뒤집는다. 계시록 6장의 ‘어느 때까지이니까?’라는 기다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응답된다(계21장).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천교의 장이 펼쳐진다. 몸의 부활은 개인적 삶의 완성을 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전개될 우주적 사건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지상에서 시작된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가 완전한 형태로 이뤄진다.

V. 나가는 말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실재를 생각과 언어로 포착하기는 어렵다. 여타의 종교적 체험 언어와 마찬가지로 성서의 표상들도 은유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전적인 죽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삶(기억)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은 소멸되지 않고 새롭게 존재를 획득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힘에 의해 부활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회피하거나 거부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부여된 숙명이다. 또한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되새겨준다. 그리스도교의 심판과 부활의 종말론을 생각한다면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부활의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전 15:20)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영의 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종말론적 부활과 더불어 창조될 새 생명의 우주적 공동체를 선취적으로, 하지만 파편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는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그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함으로써 죽음의 그늘 아래서도 부활의 힘으로 살게 하신다(롬 8:11). 그리스도교 신앙은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힘에 의해 전(全)존재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희망한다.

참고문헌

- 그레사케, G. *Naherwartung, Auferstehung, Unsterblichkeit: Untersuchungen zur christlichen Eschatologie*, 심상태 옮김, 『종말신앙- 죽음보다 강한 희망』,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0.
- 그렌츠, 스텔리,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신옥수 옮김, 『조직신학-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김균진, 『죽음과 부활의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김선영, “루터의 부활론: 죄와 죽음 vs. 의와 생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2018), 161-193.
- 몰트만, 위르겐, *Das Kommen Gottes*, 김균진 옮김, 『오시는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아리에스, 필립, *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Âge à nos jours*, 이종민 옮김, 『죽음의 역사』, 서울: 동문선, 1998.
- 아리에스, 필립, *L'Homme devant la mort*, 고선일 옮김, 『죽음 앞에 선 인간』, 서울: 새물결, 2004.
- 아우구스티누스,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와일리, 오톤 & 켈벗슨, 폴,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전성용 옮김, 『웨슬리안 조직신학』, 서울: 세복, 2002.
- 유호중, 『떠남 혹은 없어짐 - 죽음의 철학적 의미』, 서울: 책세상, 2001.
- 정현채 외, 『삶과 죽음의 인문학』, 서울: 석탑출판, 2012.
- 진중권, 『춤추는 죽음』, 1권과 2권, 서울: 세종서적, 2005.
- 최태영, 『죽음 너머 영원한 삶』, 서울: 한들출판사, 2011.
- 케이건, 셸리, *Death*, 박세연 옮김, 『죽음』, 서울: 엘도라도, 2012.
- 퀴블러로스, 엘리자베스, *Life after Death*, 최준식 옮김,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 퀵, 한스, *Der Anfang aller Dinge*, 서명옥 옮김, 『한스 퀵, 과학을 말하다』,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페터 뒤르, 한스 외 4인, *Gott, der Mensch, und die Wissenschaft*, 여상훈 옮김, 『신, 인간 그리고 과학』, 서울: 시유시, 2003.
- 포그리플러, H. *Tod*, 심상태 옮김, 『죽음』,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2.
- 플라톤, *Phaidon et.*, 박종현 역주,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서울: 서광사, 2003.

- Auer, Johann/Ratzinger, Joseph, *Kleine Katholische Dogmatik. Eschatologie-Tod und ewiges Leben*, Regensburg: Friedrich Pustet, 4. Aufl., 1978.
- Barth, Karl, *Dogmatik im Grundriß*,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47.
- Barth, Karl, *Kirchliche Dogmatik III/2*, Zürich: TVZ, 4. Aufl., 1979.
- Boff, Leonardo, *Was kommt naher? Das Leben nach dem Tode*, München/Zürich:

- Piper, 2. Aufl., 1993.
- Cullmann, Oscar, *Unsterblichkeit der Seele oder Auferstehung der Toten?* Stuttgart: Quell, 1986.
- Elert, Werner, *Der christliche Glaube. Grundlinien der lutherischen Dogmatik*, Hamburg: Furche-Verlag, 5. Aufl. 1956.
- Heppe, H./Bizer,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n*,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2. Aufl., 1958.
- Jüngel, Eberhard, *Tod*, Stuttgart: Kreuz-Verlag, 3. Aufl., 1973.
- Küng, Hans, *Ewiges Leben?* München: Piper, 4. Aufl., 1984.
- Mühling, Markus, *Grundinformation Eschat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Nocke, Franz Josef, *Eschatologie*, Düsseldorf: Patmos Verlag, 2. Aufl., 1985.
- Pannenberg, Wolfhart, *Systematische Theologie Bd. 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Schmid, Heinrich, *Die Dogmatik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n*, Gütersloh: Verlag von C. Bertelsmann, 7. Aufl., 1893.

원고접수일: 2019년 1월 8일 / 심사일: 2019년 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4일

연구자 소개: 박영식

① 전공: 조직신학 / 소속과 직위: 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신학, 신정론, 창조론, 과학신학

③ 주요논저: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창조의 신학』(단독저서), 『한스 쾅의 유대교』(번역서) 등

④ E-mail: youngsik70@stu.ac.kr

Abstract

Christian-theological Viewpoints about Death and After-death

Park, Youngsik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has described Christian viewpoints about death and after-death. Howev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hristian viewpoints about death and after-death is not univocal, and emphasize what is at stake in the discussion in the Christian theological history and especially in modern theology. Above all, we pay attention to today's view that dualism of soul and body is rejected in the antagonism of two themes of immortality of the soul and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we sought how to succeed the entire death theory (Ganztodtheorie) proposed by modern theologians.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this paper emphasized the 'creation from memory'(creatio ex memoria) and the community character of the bodily resurrection in relation to the question of the identity of the dead. Through this, Christian faith believes that the identity of the dead is entirely preserved by God Himself.

Key words: death, resurrection, dualism of soul and body, entire death theory, creation from memory(creatio ex memoria)